

【새로운 문화·예술시설을 어디에】

안녕하세요. 오카야마 시장 오모리입니다.

오카야마시는 지금의 오카야마 시민회관, 오카야마시립 시민문화홀을 대신하는 새로운 문화예술 시설의 정비 예정지에 대해 센니치 마에 지구로 결정한 것을 어제 정례 회견에서 밝혔습니다.

지금까지의 경과를 간단히 살펴보면, 오카야마 시민회관은 준공 52년, 오카야마시립 시민문화홀도 준공 39년으로 노후화가 진행되어 내진성에 불안함 점이 있어 새로운 시설의 정비가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시로서는 이러한 시설을 일체적으로 정비하고자 2012년도에 오카야마의 역사·문화 영역인 텐진쵸 (구 고락관 중고교 터)로 이전 개축 할 것을 표명했습니다만 그 후 이전보다 사람들이 왕래가 부쩍 줄어든 센니치 마에 상점가 (에도 시대부터 번성한 오모테쵸 상점가의 가장 남쪽에 있는 곳)에서 유치 희망을 함으로 시의회에서도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제가 시장으로 취임 한 2015년 10월의 시점에서는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 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새로운 문화예술 시설이 어떤 기능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를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해 지난해 말에는 오모테쵸 산쵸메 지역에서도 유치 희망을 함으로 텐진쵸 지구와 센니치 마에 지구에 오모테쵸 산쵸메 지구가 더해져 세 곳의 후보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지식인들이 모여서 올해 들어 3차례에 걸쳐 개최 한 「새로운 문화예술

시설 정비에 관한 후보지 검토회」에서의 논의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한, 각 후보지의 장점, 단점에 대한 토론을 포함해 많은 분으로부터 직접 의견을 들었습니다.

받은 의견은 모두 적합한 것으로 하나로 결정하는 것은 어렵고, 매우 고민스러웠지만 최종적으로 이하의 3가지 이유로 센니치 마에 지구를 정비 예정지로 결정했습니다. (1,2 대해서는 텐진쵸 지구와 센니치 마에 지구, 오모테쵸 산쵸메 지구 간의 비교)

- 1 오카야마시 중심 시가지의 도시 만들기의 관점에서 오모테쵸 영역에서의 새로운 활기 창출과 회유성 향상, 또한 주변에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
- 2 부지에 여유가 있고, 새로운 문화예술 시설에 요구되는 기능의 도입을 전망할 수 있다는 점.
- 3 센니치 마에 지구와 오모테쵸 산쵸메 지구는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게 되지만 현지점에서 소유자의 동의율이 센니치 마에 지역은 83%, 오모테쵸 산쵸메 지역은 43%로 센니치 마에 지구의 분이 사업의 조기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점.

또한, 후보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 판단을 한층 어렵게 하는 것이 재원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2021년도 말까지 시설 정비를 완료 시키면, 건설비의 45%를 국가 (지방 교부세)가 대납해 주어 합병 추진 채권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 시의 재정에도 매우 유리하게 작용되기 때문이고, 그런 의미에서 앞서 언급 한 결정 이유 중에서도 사업의 조기 실현 가능성은 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물론 현시점에서 센니치 마에 지구에서의 사업 조기 실현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재개발이라는 방법을 사용하는 이상 반드시 위험성은 동반합니다. 따라서,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지정하고, 재개발 사업에 따른 도시 계획 절차 등을 고려하면서 조건이 달성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기한은 내년 5월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유치 추진 동의율 (준비 조합 가입률) 100%를 요구한다.

2 2021년도 시설 정비 완료가 늦어질 경우에 발생하는 시의 재정 운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응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내용에 대해 시와 재개발준비조합 간의 협의를 정리한다.

또한, 센니치 마에 지구에서 정비를 진행해 나가는 새로운 문화 예술 시설에 대해서는 현재의 시민 회관과 같은 이벤트 중심이 아닌 「시민 모두가 언제든지 부담 없이 모여 쉰다」는 기능을 병행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 여러분도 이 새로운 문화예술 시설을 중심으로 중심 시가지 전체가 보다 활성화되어 오카야마시가 더 나은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고 협력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